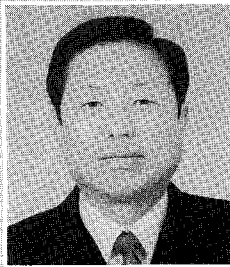


무관심으로 일관된 방송사들의 취재열기, 소비위축 가속화로



김 동 재
본회 이천육계 분회장
송정농장 대표

내 얼굴의 햇살이...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우리 육계인
의 얼굴과 가슴속에 활짝 피었으면...

장마철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천둥번
개가 천지를 진동하며 소낙비가 쏟아진다. 장

마철의 비는 얼마나 지루하고 햇살을 그리워
하게 하는가. 비 온 끝에 땅은 더 굳어진다고
했던가. 그러나 우리 양계인의 가슴은 왜이리
답답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한없이 헤
매고 있다.

요즘 세상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리의
부랑이를 보라.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관심과 무관
심의 차이로 선과 악이 교차되고 있다.

어느 날 매스컴에서 사료를 못 먹여 굶어죽
는 닭을 빅 뉴스로 방송했다. 그리고 병(ND)
에 걸려 죽은 닭을 각 방송국 TV와 라디오,
신문마다 빅 뉴스로 보도했다.

이것이 관심일까 무관심일까. 원천적인 관심
속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를
자세히 보도하여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주
위들은 이야기이기에 몸둥이 없이 머리만 가
지고 뜬금없이 방송에 소개하였다.

멍든 가슴 웅어리만 남겨둔채 끝을 맺지 못
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 닭고기 때문에 생계
에 위협을 받는 우리 육계업자가 아니었던가.

그 결과는 소비위축만 시켜 닭값 하락에
부채질만 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질 때 그래도 농촌
을 지켜온 사람들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육계업
이다.

지금까지 생을 영위한 자체는 닭에 고마움
을 느낀다. 그런데 육계농가의 경영실태는 어
떠한가? 같은 업에 10년~30년 종사했다면 장
인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남은 것은 그을린 얼굴에 굳은 주름살, 빛 뿐
이남은 것이 없다.

전업을 하려해도 정리가 되지 못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게 육계농가의 현실인 것이다.

요즘 구제역하면 어린아이까지 다 안다. 준 재해까지 선포하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선거에 편승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구제역 발생이 일본과 우리 나라가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일본과 우리 나라를 비교해 보자. 일본 국내의 마스크는 조용했다고 한다.

반면 떠들썩했던 우리 나라는 소비 위축만 시켜 결론적으로 양축 농가에 경제적 손해만 끼쳤다. 초동 진압하여 구제역이 끝났다고 관련 공무원들은 연일 자축연을 벌이며 공을 치하하고 있다. 이번에 진심으로 수고하신 축산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친자와 서자의 설움이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 왜 양계인은 서자 취급을 받는 것일까? 관심 속에 치러진 구제역은 천문학적인 거금을 들여 관심을 보였지만 양계 쪽에 관심은 무엇인가?

마스크에 떠들다 보니 어쩔 수없이 농가를 찾아다니며 백신을 했느니 안했느니 잘못해 그러니 발생시 신고 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하며 엄포만 놓고 다닌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 다지만 목소리 작은 우리 서자도 관심 좀 가져주시오 우리 양계인이 살길은 높은 값에 닭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원가 절감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해야겠지만 법정 전염병만큼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듯 농가에서는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병계를 유통시키고 있다. ND 같은 법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을 하여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신을 공급하는 것도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낭비일 뿐이다.

돈이라면 엄나무 위에도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다. 상흔에 눈이 어두워 병계를 헐값에 사들여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는 상인도 많다고 한다.

닭고기를 수입하는 오포상이나 국내 시판을 하는 상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협회의 더 없는 노력과 우리 모든 양계인의 단합만이 우리의 살길인 것 같다.

곧이어 1년 중 최대 성수기인 삼복이 다가온다.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철저한 방역으로 험난한 이 불황을 다함께 이겨나갑시다. **양계**